영업정지 7개저축銀 이달중 매각 추진

예보 사장 "보해저축은행 등 7곳 순자산가치 부족…매각 대상"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4일 "지난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 대다수가 매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7개 영업 정지 저축은행들에 대해 최근까지 금융감독원과의 공동 검사를 거의 마치고 이달 중에 매도자 실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보해저축은행 등 6개 은행은 이달 중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도민 등 7개 저축은행들은 유동성 악화 등으로 지난 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장은 "7개 저축은행들 대다수가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해 이달 중에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고 이미 실사가 시작된 곳도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이달 말에서 내달 중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금은 충분하게 확보해 (자금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겠지만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동 검사 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온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예보가 관리인을 해당 저축은행에 파견하고 실사를 거쳐 매각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 가운데 일부는 대주주가 나서 자체적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거나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예보가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을 진행한다"며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저축은행 순으로 매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무상급식 효과 빼면 5% 훌쩍"

지출 0원 품목…지수 왜곡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로 조사됐으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효과를 제외하면 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489개 가운데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등 2개를 제외한 487개 품목으로 산출한 지수는 3월에 120.9로 지난해 같은 달(115.0)보다 5.1% 상승했다.

2개 품목의 가중치는 1.77%(고교 납입금 0.79%, 학교 급식비 0.98%)에 그치지만 2개 품목의 지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다.

또 2개 품목을 제외한 지수의 전월대비 상승률은 1월 0.10%, 2월 0.76%, 3월 0.74% 등으로 집계돼 2월과 3월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체 소비자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이 1월 0.9%에서 2월 0.8%, 3월 0.5% 등으로 나타나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선 고교 납입금 지수를 보면 지난해 3월 109.9에서 올해 3월 90.9로 1년 만에 17.3%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특성화고 납입금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면서 3월부터 특성화고 납입금이 0원이 됐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비 지수는 3월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10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3월 119.2에서 올해 3월 93.8로 무려 21.3% 급락했다.

이처럼 가격이 0원인 품목들이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지수의 연속성 측면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은 조사 규격을 정할 때 대표성과 계속성, 공통성 등 3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조사가격의 시계열을 유지하고 물가수준의 변동을 될 수 있으면 지역별로 통일성 있게 측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6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3월에 4.5~9% 급등했다. 식품 물가의 급등이 외식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뚜렷했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떨어져 공통성 기준을 상실한 셈이다. /연합뉴스

봄을 부르는 로맨틱 와인 광주신세계 지하1층 신세계 L&B매장에서는 봄을 부르는 사랑고백와인 스위트 와인부터 봄나들이갈때 샌드위치와 김밥 등에 어울리는 로제와인, 상콤달콤, 파파야의 열대과일향이 강한 칠레와인까지 다양한 봄을 부르는 와인 시음회를 열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aT 광주전남지사 금융사업 전국 1위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종경)는 4일 '2010년 금융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 2년 연속 최우수 지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aT는 매년 전국 11개 지사를 대상으로 금융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83개 업체에 736억원, 수산물발전기금 19개 업체에 73억원, FTA기금 1개 업체 5억원, 공사 자체자금 19개 업체에 17억원 등 총 831억원을 광주·전남지역 유통·가공·수출업체에 대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사는 자금지원 규모 확대, 대손관리 부분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특히 체계적인 채권관리를 통해 대손 제로(0)를 실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주식거래 늘었다

거래량 22%·대금 40%↑

광주·전남지역의 3월 주식거래 실적이 전달에 비해 크게 늘었다.

5일 증권선물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의 주식 거래량은 208억4848만주로 전달 170억6771만주에 비해 22.15% 증가했고, 거래대금도 전달에 비해 200조956억원으로 40.40% 증가했다.

거래양 증가율은 전국 평균 보다 2.30%P 높았고, 거래대금도 전국 평균보다 8.94%P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식거래 실적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중동지역 정정불안 지속 및 일본 대지진 등 악재에도 국내 경기 선행지수 호조, 엔화안정을 위한 G7 공조 및 실적호전 기대담 등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며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 한 것에 기인 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닥도 투자심리 호전과 IT및 조선업종에 대한 실적호전 전망이 이어지며 상승세를 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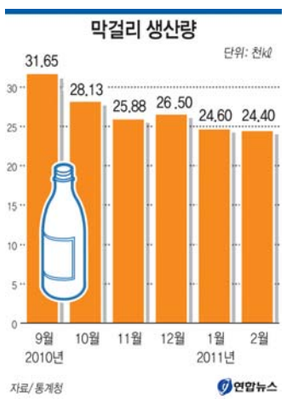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고품질 광주 농산물 인기 올들어 458억 어치 판매

올들어 고품질의 광주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4일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에 따르면 올들어 3월 말까지 광주지역 농협의 농산물 판매실적이 45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96억원보다 16%(62억원) 증가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올해 농산물 판매 목표액인 2100억원 달성을 위해 공선출하회 등 산지유통조직을 육성·규모화해 농산물 유통 시장에서 교섭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막걸리 열풍 식어간다

막걸리 열풍이 식어가는 모양새다.

거침 없는 증가세를 보였던 탁주 생산량 및 내수량이 32개월만에 동반 감소한 것이다. 반면, 맥주와 소주 생산량은 반등 흐름을 타고 있다.

4일 통계청의 광공업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막걸리(탁주) 생산량과 내수 출하량은 각각 2만4395㎘와 2만2753㎘로 작년 2월보다 6.8%, 8.1%씩 감소했다.

막걸리 생산량과 내수 출하량이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2008년 6월 이래 처음이다. 막걸리 바람이 불기 시작한 2009년 이후 막걸리 생산량은 2009년 9월(2만1069㎘)에 월 2만㎘선을, 2010년 3월(3만527㎘)에는 3만㎘를 각각 넘어선데 이어 작년 6월에는 3만3906㎘로 고점을 찍었다.

지난해 3~9월에는 거의 매월 3만㎘를 넘었지만 10월 2만8125㎘로 내려앉았고 11월부터는 넉달째 2만5㎘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막걸리 생산량과 내수 출하량이 줄었지만 2년 전인 2009년 2월(생산 1만1389㎘, 내수출하 1만904㎘)에 비해선 여전히 갑절이 훨씬 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光銀 리더스클럽 김홍균 중앙회장 선임

광주은행은 4일 오전 계림동 금수장호텔에서 우수 중소기업고객 모임인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회장단을 초청 '2011년 광주은행 리더스클럽 중앙회 회장단 선임 및 운영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김홍균 남선석유 회장을 신임 중앙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김 회장은 오는 28일 광은리더스클럽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간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총회 신임감사에는 최경관 (주)한맥디앤에스 사장이 선임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